



# 타지 않는 '마술냄비' 비결은 ... 이중구조 특허

센 불로 요리하다 음식이 냄비에 늘어붙어 버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다. 음식이 타거나 늘어붙으면 솥이나 냄비를 설거지하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제이온의 이중구조 솥인 '만능요리 가마솥 제이온킹'은 이 같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제품이다. 누룽지같이 늘어붙기 쉬운 음식을 만들 때조차 음식이 타거나 솥에 늘어붙지 않는다. 지난달엔 일정 고온에 도달하면 불이 자동으로 꺼지는 최신 가스레인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트'한 신제품을 내놓고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중구조로 만들어진 솥  
문인철 제이온 대표가 '이중구조로 만들어진 솥'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2000년대 초였다. 너무 높은 온도의 기름에 음식을 튀기면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경각심이 일 때였다.

문 대표는 "논란을 지켜보다가 냄비를 두 겹으로 만들면 냄비 안쪽 온도가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운영하던 제조 공장을 문닫고 3년간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데 매달렸다. 2003년 회사 제이온을 설립하고 이중구조 가마솥 '제이온킹'을 내놓았다.

이 제품의 단면을 잘라보면 알루미늄 두 장이 간격을 두고 겹쳐져 있다. 솥을 데우면 열이 음식물로 바로 전달되는 일반 냄비와 달리 알루미늄 사이의 공기층이 데워진다. 뜨거운 공기는 음식물이 닿는 솥 안쪽 부분을 다시 데운다. 불이 닿는 겉면은 뜨겁지만 안면은 17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음식이 늘어붙지 않는 원리다.

문 대표는 "한 장짜리 솥은 바닥이 100



문인철 제이온 대표가 가마솥 '제이온킹'의 이중 열 공급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성미 기자

## 솥 안쪽 공기 덩어리 열 공급 3년 간 흡수핑서 400억 매출 신제품 내놓고 유통채널 다변화

도여도 옆면은 50도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밑은 늘어붙고 윗부분은 잘 익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제이온 가마솥은 밑면과 겉면이 동일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한 불에 요리하는 대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열만 제공하기 때문에 영양소도 덜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2016~2017년 2년 연속으로 현대홈쇼핑에서 주방기구 부문 매출 1위를 차지했다. 2015~2017년 3년간 흡수

핑에서 40만 세트를 판매해 같은 기간 누적 4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문 대표의 말처럼 "앉아서 못 팔 정도"로 빅히트를 쳤다. 최근 경기 침체에 1900여㎡(580평) 규모의 공장을 세운 것도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해서였다.

◆최신 가스레인지에도 적용 가능  
제이온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2014년부터 모든 가스레인지에는 조리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해 300도 이상 과열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센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제이온의 냄비는 300도 이상 가열하더라도 불이 닿는 면은 온도가 높지만 냄비 안쪽은 온도가 높지 않은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냄비의 바닥열만 감지한 가스레인지가 음식이 데워지기도 전에 꺼지면서 제이온

제이온	
설립	2003년 1월
위치	경기김포시
제품	가마솥 제이온킹
특징	이중 구조로 제작돼 바닥에 음식이 늘어붙지않는 솥

은 시장에서 뒤쫓히기를 맞게 됐다. 제이온은 1년간 흡수핑 판매를 중단하고 최신 가스레인지에 맞는 제품을 다시 개발해 지난달 시중에 내놨다. 냄비 뒷면 중앙부가 오목하게 파여 불과의 거리가 멀어진 디자인으로 특허를 받았다.

문 대표는 "신제품이 나온 지난달을 제이온의 두 번째 회사 창립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이중냄비 가마솥의 성공 이후 많은 업체가 소위 '짝퉁' 제품을 내놓았지만 이번 신제품은 베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도약을 준비 중인 제이온은 유통채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전까지 홈쇼핑에 집중했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병행할 생각"이라며 "대형마트 입점은 물론 미국 내 홈쇼핑 회사와도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불황에 중국 제품의 공습으로 인해 많은 중소 주방용품 업체가 고전하고 있지만 이번 신제품으로 재기에 성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 "장인정신 갖춘 소공인 찾습니다"

중기부, 명문소공인제 도입 자금·판로·기술개발 통합지원

명문소공인 제도 개요	
대상	업력 15년 이상 소공인
신청 기업	올해 100개, 내년 200개
혜택	소공인특화자금 활용 시 융자금리 0.4%포인트 인하 판로·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홍보영상 제작·송출 지원 모범소공인 정부포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자료: 중기부

정부가 업력 15년 이상 소공인 가운데 장인정신을 보유한 우수 업체를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한다. 이들 소공인에겐 자금지원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은 22일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다른 소공인의 롤모델로 육성하는 명문소공인 제도를 올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장인정신으로 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 소공인 가운데 경영환경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0곳을 추가 선정해 명문소공인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명문소공인으로 지정된 업체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를 계획했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가 생산 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이용할 경우 융자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다.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온라인 물에 입점하는 등 판로개척을 비롯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도 명문소공인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으로 124억원이 책정됐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판로지원에 3000만원, 기술지원에 5000만원이다.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에도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예정이다.

명문소공인으로 지원하려면 소공인은 23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나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관련 협회나 단체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 NEW 새로 나왔어요

### 웅진씽크빅, 영유아 독서 돕는 전자책 '베베톡' 출시

웅진씽크빅이 영유아 아이들의 독서를 돕는 스마트 전자책 '베베톡(사진)'을 출시했다.

웅진북클럽 영유아 전집 도서 및 학습 프로그램에 생동감 넘치는 소리, 영상과 함께 읽는 입체적인 독서를 지원한다. 베



베베포로 전집의 표지와 내지를 읽히면 전체 그림책의 내용과 노래가 재생된다. 휴대용 바인더북을 이용하면 전집 도서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아이에게 책의 내용을 들려주거나 블루투스 기능으로 웅진북클럽과 연결해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다. 웅진북클럽 영유아 캐릭터인 베베가 적었다.

## 모십니다

### 2019 국제복합소재전시회 11월 13일 개막

국제복합소재전시회(JEC ASIA 2019)가 11월 13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C1, C2홀과 D1홀)에서 열립니다. 복합소재는 자동차, 항공기, 기계, 전자제품, 해양, 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첨단 소재입니다.

서울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열립니다. 혁신부품 및 제품전시관, 기업 간 비즈니스미팅, 복합재료 관련 투어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프랑스의 복합소재 전문전시 및 네트워킹 업체인 JEC그룹이 주최하고 한

국제신문사가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코오롱, 효성, 한국기부, 한화첨단소재, 삼양사, 켈트랜드, 도레이첨단소재, 아케마, 쇼마라 등 약 250개의 국내외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경닷컴(event.hankyung.com)에서 사전등록하면 전시장을 무료로 관람하고 각종 콘퍼런스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최: JEC Group 공식스폰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후원: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미디어파트너: 한국경제신문

# 1인용 밥솥, 초소형 건조기 ... "1인용 가전이 뜬다"

## 뉴스카페

국내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는 전체의 29.3%였다. 혼자 사는 이유야 각기 다르지만 혼자 생활하는 '싱글슈머(싱글과 소비자의 합성)'가 소비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관련업계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며 경쟁에 나섰다. 실용성과 디자인까지 갖췄다.

일반 밥솥은 1인 가구엔 너무 크다. PN풍년의 미니밥솥 'MONO 런치박스(사진 왼쪽)'는 0.36L 용량의 아담한 크기다. 잡곡밥도 가능하며, 취사



가 끝난 뒤 보온 모드로 자동 전환돼 5시간까지 고슬고슬한 밥맛을 유지한다. 10분 단위로 조절되는 예약 취사 기능과 자동보온 기능이 추가됐다. 본체와 뚜껑이 분리돼 좁은 싱크대에 서도 설거지가 가능하다. 요리가 번거로워 배달음식으로 끼

니를 이어가면 건강을 잃기 십상이다. 코맥스산업의 '지금엔 렌지타입'은 140도까지 사용 가능한 내열 소재의 전자레인지 조리용기다. 1인 가구가 늘면서 2017년 출시 후 매출이 두 배 증가했다. 에그(340mL), 라이스(380mL), 누들(1.2L) 등 용량이 다양하다. 갈치조림, 삼계탕 등 한식과 파스타, 브라우니 등 44가지의 레시피를 제공한다.

휴테크에서 내놓은 '카카오프렌즈' 마사지 쿠션은 인기 캐릭터 라인업과 어피치의 개성을 담았다. 평상시엔 일반 쿠션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면 된다. 앞면은 스웨이드 원단이라 봉제인형 같은 느낌이지만 신체가 닿

는 부분엔 메시 소재를 사용해 통기성을 높였다. 내장된 마사지볼 한 쌍은 온열 및 주무름 기능에 특화된 뽕친 근육을 이완해 준다. 무선이어서 장소 제약이 없다.

집이 좁아서 빨래를 널 공간이 마땅치 않을 경우엔 소형 건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위니아대우의 초소형 의류건조기 '미니(오른쪽)'는 3kg 용량으로 기존 대용량 건조기의 5분의 1 크기로 가볍다. 배기 호스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원하는 곳 어디든 설치 가능하다. 표준 코스는 한 번에 수건 16개까지 건조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중복보장

## 보험료 줄줄 새는 원인

### 지금 당신만 더 내고 있습니다

# 보험클리닉

피플라이프

보험클리닉의 내 보험 바로잡기

상담예약 : 1833-6114

[보험클리닉 무료 진단 서비스]

1 모든 상담이 무료

2 보험진단 비교추천 청구대행

3 지능형 보장분석 시스템

가까운 보험클리닉에서 방문상담 가능

김필립	02-2086-8700	롯데마트 빌드타워점	02-2229-4734	장미산점	031-907-8520
이수정	02-2229-4687	롯데마트 수원점	031-8067-4013	홍릉점	042-489-9967
롯데마트 사초점	02-2229-4788	롯데마트 삼산점	032-591-8870	홍릉점	051-747-8740
홍릉점	02-2086-8787	홍릉점 직진점	032-546-3051	롯데마트 사당점	051-325-8851
홍릉점	02-2229-4753	홍릉점 간석점	032-864-9880	광주상무점	062-374-8871